

다자이후



다자이후시 가이드북



春

봄



▲가마도 신사의 벚꽃

부드러운 햇살에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봄의 다자이후

벚꽃이 일면에 아름답게 피는 다자이후
정청 유적. 기분 좋은 바람에 이끌려 여윌
게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활
기 넘치던 옛날의 '다자이후'가 떠오른다.

천 년을 변함없이 이 평화로운 경치를 지
켜온 사람들의 열정이 아직도 이 거리에 살
아 있다. 그 역사를 배우고 그 사랑을 이어
나가는 것이 다음 천 년의 다자이후를 만들
것이다.



▲가마도 신사의 호마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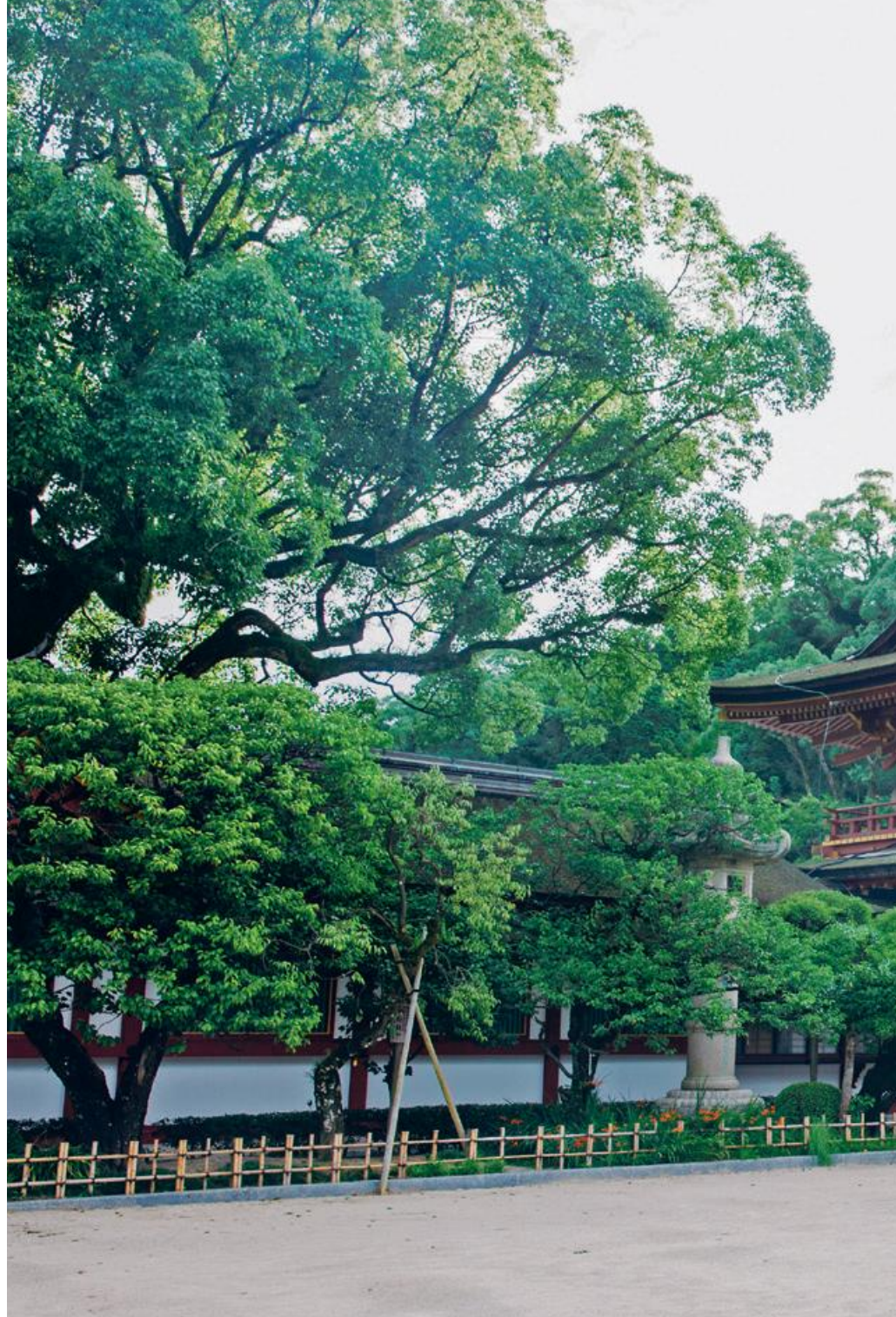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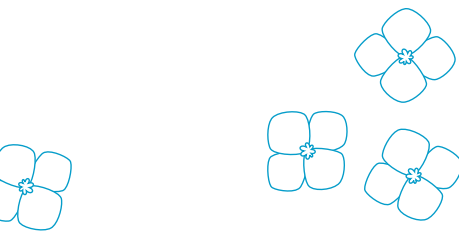
▲가마도 신사의 석남화



▲간제온지(절)의 신록



▲규슈국립박물관
유리 벽에 비치는 여름 풍경



▲다자이후 텐만구(신사)의 녹나무와 누문



▲가이단인(절)의 참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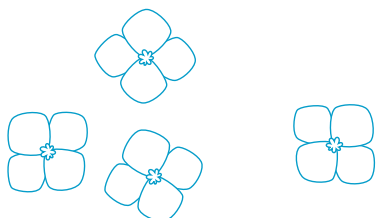


▲다자이후 텐만구(신사)의 텐진 축제



夏

여름



시원한 바람과 새잎 향기에 감싸이는
여름의 다자이후

이 녹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걸까? 새싹이 나고, 붉게 물들고, 잎이 졌다가
다시 살아 숨쉰다.

일상생활 속에서 삶이 답답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이곳을
흐르는 시간의 웅대함과 자연의 깊이를 느끼고 나면 가슴을 활짝
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秋

가을

화려한 색채가 풍부한 정서를 이끌어내는 가을의 다자이후

'지금'을 산다.

옛부터 지켜져 온 풍요로운 자연과 확실한 문화 를 '지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그 기쁨을 소중한 사람과 '지금' 함께할 수 있는 것. 우리와 아이들을 위해 '지금'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지금'에 큰 의미가 싹튼다.



▲가마도 신사의 부적 판매소



◀다자이후 고도의 빛



▲고묘젠지(절)의 단풍



◀간제온지(절)의 코스모스

冬

겨울



▲다자이후 텐만구(신사) 본전의 설경



▲다자이후 텐만구(신사)의 곡수의 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기원하는 겨울의 다자이후

간제온지(절)의 종소리가 이곳 다자이후에 또
새로운 일년의 시작을 알린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비롯하여 다자이후에 살던 선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무엇을 생각 했을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접함으로써 그들
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5년 후, 10년 후, 20
년 후와 우리의 마음이 합쳐져 다자이후와 함께 또 새
로운 역사를 새겨 나간다.



다자이후 텐만구(신사)의 오니스베 행사





①다자이후 정청 유적

다자이후 정청 유적은 7세기 후반부터 11세기 후반에 걸쳐 규슈를 통치하며 외교 · 군사를 담당한 관청의 중추부였다. 당시에는 궁전과 똑같이 구성된 건물이 있었고, 현재는 그 기초와 초석을 보존 · 복원한 사적공원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②미즈키(성) 유적

미즈키(성)는 664년 당나라와 신라(각각 현재의 중국과 한반도를 폭넓게 통치한 국가)의 침공에 대비하여 축조된 방벽이다. 전장 1.2km이고, 바깥쪽에 폭 60m, 깊이 4m의 해자를 조성하고 물을 채웠다 하여 미즈키(수성)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③오노조(성) 유적(시오지산)

오노조(성)는 665년에 축조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약 8km에 이르는 능선을 둘러싼 흙담과 계곡을 가로막는 돌담이 아직도 남아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8세기 후반에 시오지(또는 시오인절)가 건립된 이래 불교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다.

④호만구 가마도 신사

호만 산은 고대부터 다자이후를 수호하는 산으로 여겨져, 그 기슭에 있는 호만구 가마도 신사는 '연분을 맺어주는 신'으로서 널리 추앙을 받고 있다. 경내에서는 벚꽃과 단풍 등 고대의 귀족도 즐기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

⑤호만산

호만산은 옛부터 신이 사는 곳, 혹은 산 자체를 신이라고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또 후쿠오카현 내에서 등산객이 가장 많은 험한 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산정에는 가마도 신사의 상부 사당이 있고, 산 정상에서는 360도 전망을 즐길 수 있다.

⑥간제온지(절)

일본 문학의 걸작 『겐지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간제온지(절)는 규슈를 대표하는 사원으로서 746년에 완공되었다. 경내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국보)이 있고, 보물전의 5m가 넘는 관음상을 비롯한 16개의 불상(모두 중요 문화재)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⑦가이단인(절)

가이단(계단)이란 승니(승려와 여승)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계율을 수여하는 곳으로, 가이단인(절)은 8세기 후반에 간제온지(절)에 설치되었다. 도다이지(절)와 시모츠케 야쿠시지(절)의 계단과 함께 '천하의 3대 계단'으로 불린다. 에도시대에 간제온지(절)에서 독립하여 현재는 임제종 사원이 되어있다.

⑧다자이후 텐만구(신사)

다자이후 텐만구(신사)는 텐진(스가와라노 미치자네)신을 모시는 전국 약 12,000개 신사의 총본사로 알려져 있으며, '학문의 신'으로서 널리 추앙을 받고 있다. 경내를 수놓는 사계절의 꽃들과 옛날식 행사 및 제례가 참배객들을 매료한다.

⑨고묘젠지(절)

고묘젠지(절)는 다자이후 텐만구(신사)의 남쪽에 있고, '이끼 절'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끼로 땅을, 하얀 모래로 바다를 표현한 정원과, 돌을 배치하여 '光' 자를 표시한 석초정원 2개가 유명하며, 초여름에는 신록, 가을에는 단풍도 즐길 수 있다.

⑩규슈국립박물관

규슈국립박물관은 옛부터 다른 나라와의 교류 거점이었던 규슈 지역에 도쿄, 나라, 교토에 이어 일본에서 4번째로 생긴 국립박물관이다.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관련 홈페이지

다자이후시
(<http://www.city.dazaifu.lg.jp/>)
일본유산 다자이후
(<http://www.dazaifu-japan-heritage.jp/>)
다자이후 관광협회
(<http://www.dazaifu.org/>)
호만구 가마도 신사
(<http://kamadojinja.or.jp/>)
가이단인(절)
(<http://www.geocities.jp/kaidanin925/>)
다자이후 텐만구(신사)
(<http://www.dazaifutenmangu.or.jp/>)
규슈국립박물관
(<http://www.kyuhaku.jp/>)



일본유산 '서쪽 수도' 다자이후

다자이후의 지역 역사를 말하는 스토리, 고대 일본의 '서쪽 수도' ~동아시아와의 교류 거점~이 일본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자이후의 깊은 매력을 접해 보십시오.



서쪽 수도 다자이후



[illegible]

직통 버스로 약 30~40분

하카타
버스 터미널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

다자이후

다자이후 라이너 버스 '다비토'

JR 하카타역이나 후쿠오카
공항에서 갈아탈 필요 없이
다자이후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博多 太宰府間 バス路線
は「だびと」です。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

니시테츠
후쿠오카
(텐진)역

전철로 약 30분

다자이후 관광열차 '다비토'

니시테츠 후쿠오카(텐진)역에서 운치 있는
열차를 이용해서 다자이후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DAZAIFU TRAIN

旅人

NISHITETSU

운행 시간표는
여기에서 확인▶

A panoramic view of a coastal landscape, likely a Japanese woodblock print. The scene depicts a wide expanse of water in the foreground, with a city or settlement visible on the right side. In the background, several prominent mountains rise from the water's edge. The style is characteristic of Edo-period Japanese art, with fine lines and a muted color palette. The image is divided into vertical panels, suggesting it might be a reproduction of a larger work or a set of sliding doors.

‘하카타 다자이후 그림 병풍’에는 세키야에서 다자이후 텐만구(신사)에 이르는 거리 풍경이 그려져 있고, 신사 앞 마을을 사람들이 왕래하는 에도시대 ‘사이후 참배’의 활기를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부터 사람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자이후가 있다는 것을 현재의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자이후시의 꽃인 ‘매화’를 모티프로 하여 다자이후 정청을 이미지한 붉은색으로 화려하게 디자인했습니다.

10

다자이후



다자이후시 가이드북